

## 고부 갈등 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sup>1)</sup>

최효일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고부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그 가능성의 탐색을 시도한 것으로서 동거 고부 124쌍을 대상으로 동거생활에서 체험한 서로의 장단점의 비교와 상호 요망사항들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부 모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즉 시모는 심리적 위안과 대외적인 멋뻐함을, 자부는 자녀양육과 가사관리, 어려운 문제 상담, 집안에 안정감 주기 등을 큰 혜택으로 들었다. 2) 시모들은 전통적 가족규범을 중시하여 자부에게 전통적인 가족봉사를 요구하고, 자부들은 자신의 가족으로서의 입지(立地) 확보 및 자유권과 주부권을 요구하였다. 3) 고부의 공통적인 큰 불만으로 상호의견대립을 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서로의 요구 충족을 통한 사회 교환론적 측면에서의 고부갈등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로 이뤄진 가족 사이에서도 친화와 갈등이 공존한다. 혈족으로 이뤄진 가족가운데서 유일하게 비 혈연 관계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문제는 오랜 세월이 걸쳐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이는 당사자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가족원 사이에 확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대가족 제도에 뿌리를 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외형상 비록 분가해서 사는 경우에도 고부간의 갈등관계는 여전히 한 집안의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체로 갈등의 결과가 서로 대결양상으로 발전

할 경우에는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고 상호 협조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해결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연구(Pruitt & Carney, 1993; Ohbuchi & Kitamaka, 1991) 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바다. 즉 양자간의 대결은 결국 서로에게 모두 실질적인 손실을 끼치고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입고, 입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온 이 고부문제도 양자간에 흐르는 부정적인 감정차원을 벗어나 실 생활에서의 상호

1)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정 양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 학술연구조성비로 이뤄졌다.

적 기여 측면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화 감정을 회색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고부관계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이론들을 개관하고 다음에 고부간의 경험된 사실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고부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I. 우리 사회의 고부 관계 특성

고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가족 집단이 모계 중심이나 부계 중심이나 하는 점일 것이다. 모계 중심의 가족에서는 고부간의 행위 제약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나 부계 사회에서는 아주 엄격하여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부관계에 엄격한 규범이 형성된 것은 부계중심의 가족 제도를 채용한 조선 조에 들어와서이다. 이 규범의 모체는 주자가훈으로서 이는 유교의 정수이며 삼강오륜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남녀 유별과 효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규범을 강요하는 윤리적 법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한국 가족집단은 가부장제이며 상하 질서가 존중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고부간에도 지배와 복종의 엄격한 규율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그 특색이다.

그러나 시대 변천에 따라 유교적 도덕 규범이 약해지고 외래 문화가 밀려오는 오늘날 가족의 구성이나 그들의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근대 산업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였고 따라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활규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고부간의 복종과 지배의 규범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고부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러는 경제권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이행됨에 따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실질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상하질서를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경향과 생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족원을 중심으로 그 세력 구조를 개편하려는 대항적인 경향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가족집단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II. 고부 관계 관련 이론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인간관계의 제반 행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그중 고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모델들을 가려서 제도화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균형 이론, 세대간 전이 이론, 권력 이론, 상호기대 이론, 사회교환 이론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제도화 이론: 조직이론의 거시이론으로서 인간관계의 행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Meyer와 Rowan(1977)은 “제도화란 사회과정, 사회적 의무 또는 사회적 현실이 사회적 사고와 사회적 행위속에서 법칙과 같은 위치를 취하게 되는 과정이다.” 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행위의 도식이 그 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마련되고 개인은 그 도식에 따른 인간 관계의 제반 행위를 실천하고 Zusker(1977)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행위는 의미가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즉 인간관계에서 행위자나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나 그 제도적인 행위모델의 내용을 이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충분히 수용하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이나 불평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족집단 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그 사회가 갖는 제도적인 행위모델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정신분석학적 이론: 이 모델은 고부간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모델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근친 상간적인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자간이나 부녀간이나 동기간이나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도 아들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애정의 경쟁 상대가 되는 입장이 되므로 고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며느리에게 전위시켜 며느리를 중요하고 학대하게 되며 며느리 또한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시어머니를 적으로 대한다고 한다. 흔히 청상과부인 시모의 심한 '시집살이' 사례가 그 대표로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관계는 숙명적인 갈등상태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Freud(1940)의 범 성론적 정신분석 이론이 많은 비판의 소리를 거스르며 얼마나 고부간의 갈등을 진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에 수긍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3) 균형이론: 사회심리학자 Heider(1958)의 균형이론도 고부관계를 해석하는 모델로 검토될 만하다고 본다. 그의 균형이론은 인간관계를 삼자관계로 분석하는 기본 입장이다. A와 B, B와 C, C와 A의 삼자관계가 기본적인 인간관계이고, 이 삼자 간의 인간관계에서 상호 화친적이면 +이고, 불화인 경우 -이며 이 3개의 부호의 교적이 +이면 삼자 관계가 균형적이고, 그 부호가 -이면 불균형적이라 한다. 그리하여 균형적인 인간관계는 안정적이어서 지속되지만 불균형적인 인간관계는 균형관계로 옮겨가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삼자관계의 균형상태로 이행하려는 힘이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세대간 전이 이론: 李 鎮煥(1976)이 발전시킨 이 모델은 일종의 학습이론이다. 고부간의 관계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경험하고 학습한 결과에 따른 행위 관계로 간주한다. 즉 시어머니가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자기 시어머니로부터 학습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다음 자신의 며느리에게 전이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학대받은 그대로 학대하게 되고, 자기가 관대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그가 학습한 대로 관대함과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이 이론은 주장한다. 즉 고부간의 인간관계도 대를 이어서 전이해 가는 하나의 학습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 권력이론: 이 이론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근거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약자를 지배하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통적인 가정에서 시어머니는 자기보다 약자인 며느리에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따라서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며느리를 학대하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근거이다. 권력이론은 조직이론으로서는 정치이론과 연관된다. Salancik과 Pfeffer (1977)등은 집단 내 관계가 근본적으로 권력이 상호작용 하는 정치적 관계라고 주장한다. 고부관계도 따라서 고부간의 권력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일면이 있다는 것이다.

6) 상호 기대이론: Vroom(1964)이 제시한 이 이론은 모든 인간관계를 독실에 의해서 해석하려는 이론이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 며느리로부터 어떤 득과 실을 예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며느리를 구박하고 학대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리라 생각되면 서슴없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를 학대하는 것이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면 며느리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며느리의 성향에 따라 그를 학대하는 태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 이론은 철저한 이해 득실의 손익 계산에 의해서 고부간의 관계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기대이론은 도구이론 또는 방편이론이라고도 한다.

7) 사회 교환 이론: 이 이론은 모든 인간관계를 교환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Jones와 Gerard(1967)는 인간관계의 교환을 정보적 교환과 생활적 교환으로 양분하였다. 정보적 교환은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인간관계의 교환이며 생활적 교환은 감정적 정서적인 거래를 하는 교환관계이다. 또한 Emerson(1962)은 어느 한 사람이 가치를 두는 어떠한 자원이나 성과를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다른 방도로는 얻을 수 없다면 그 자원이나 성과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고부관계도 자원과 성과 또는 지식과 지식, 감정과 감정, 또는 지식과 감정이 서로 교환되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대가로 며느리의 존경심을 받고 또 며느리는 시모를 잘 받들어 모시면 그에 상응하는 효부라는 칭송을 받는 교환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몇 이론이 일반적인 고부관계의 행위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 검토될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시 지적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한가지 이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충분치 않다. 예컨대 청상과부 시어머니의 심한 시집살이 예를 이 학습이론만으로는 그 설명이 충분치 않다. 과거 자기가 겪은 학습 경험의 재현으로만 보기보다는 여

성 특유의 질투심이나 경쟁의식의 발로도 일부 끼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III. 동거 고부 상호간의 기여도 및 요구 분석

고부가 동거하는 가운데 서로가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이점과 불리한 점에 대하여, 그리고 상호 요구요인에 대하여 비교 고찰함으로써 양자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 1. 연구 방법<sup>2)</sup>

1) 조사 대상: 5개 지역 \*에 걸쳐 동거하는 고부들 124쌍을 선정하였는데 시모들의 나이는 60대와 70대가 많았고(M=62.8), 자부들은 20대에서 40대에 걸쳐 고루 분산되었다(M=33.4). 그리고 학력에 있어서 시모는 중졸이상이 겨우 20%이고 46%가 무학인데 자부는 대졸이 26%, 고졸이 45%로 훨씬 높다. 시모의 반수가 편모이고 대체로 (72%) 장남(또는 독자)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 가진 시모는 8%인데 자부는 34%나 직업을 갖고 있었다.

2) 조사 절차 및 자료의 수집: 고부간에 동거를 통하여 상호간에 느끼는 장단점과 요망사항 등에 관하여 Likert식 10점 척도 상에 그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각각 5개의 등위를 매기도록(ranking)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1대 1로 면접을 통하여 반응을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기술 통계적인 분석과 요인 분석적 방법을 썼다.

2) 최효일(1992)의 학위논문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음. \*서울, 경기, 강원, 전주, 광주

#### 2. 결과의 분석

1) 자부의 정적·부적 가치: 시모가 느끼는

장점 및 단점

먼저 시모의 입장에서 자부는 어떤 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부와 동거하는 데서 오는 장점을 시모에게 물어 보았다. 질문의 내용은 Parsons의 가치 모형에 따라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와 감정 관여적 가치(expressive values)를 개념 축으로 하여 도구적 가치 문항 3개(문항 5, 2, 1)와 감정 관여적 가치문항 3개(문항 4, 3, 6)에 대해 Likert 식 10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고, 다시 각 문항에 등위(等位)를 매기도록 하여 얻은 결과를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자부의 정적 가치: 시모가 느끼는 동거장점

문항	N	등위*					평정치	
		1	2	3	4	5	M	SD
3. 손자 때문에 심심치 않다.	124	37	39	14	20	6	8.3	2.74
4. 든든하고 외롭지 않다.	124	35	41	23	13	5	8.5	2.72
6. 남 보기에 멋있다.	124	17	17	27	25	22	7.8	2.40
2. 시모의 몸을 편하게 한다.	124	12	8	24	21	29	6.2	2.63
5. 시모 자신의 시간을 갖게 한다.	124	11	8	17	16	24	6.8	2.95
1. 시모에게 경제적 도움준다.	124	9	9	16	24	32	6.1	2.72

\* 등위의 사례 수 합계는 5위까지만 매기게 했으므로 전체 사례 수와 일치하지 않음

위 표에 따르면 첫째 : 등위반응과 평정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여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시모의 반응에서 '손자 손녀로 인하여 여가를 즐기게 하고, 마음 든든한 안정감과 고독 탈피, 대외적으로 멋있함을 보장 받음' 등 동거로 인한 혜택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7.8~8.5). 이들 세개 항목은 모두 감정 관여적 성격의 자원으로서 자부가 시모에게 배분할 수 있

는 더 가치 있는 자원은 신체적 안녕보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위안과 보상임을 뜻한다. 그러나 도구적 가치항목에의 평정치도 모두 중간 점수인 5점을 상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리적 위안보다는 덜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써 자부가 시모에게 배분 할 수 있는 정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모가 느끼는 자부의 부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시모에게 물어 그 반응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부의 부적 가치: 시모가 느끼는 동거 단점

문항	N	등위*					평정치	
		1	2	3	4	5	M	SD
1. 며느리와 의견 대립	124	56	24	20	11	9	6.2	2.59
2.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	124	26	47	19	16	10	5.3	2.92
5. 체통 지키기 힘들다.	124	18	17	22	19	39	4.6	2.80
3. 아들과의 대화 방해	124	14	20	39	29	17	4.5	2.88
4. 며느리 중심의 식사	124	6	10	18	41	40	4.0	2.66

\* 등위의 사례 수 합계는 5위까지만 매기게 했으므로 전체 사례 수와 일치하지 않음

이 표에서 '며느리와 의견 대립'이 가장 중요한 부적 가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며느리 눈치 보임'인데 평정치가 중간점수 5점을 약간 넘을 뿐이다. 그리고 '체통 지키기 힘들다.', '아들과의 대화 방해'... 등등에서는 평정치 중간점인 5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불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모의 불만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시모의 정적·부적 가치: 자부가 느끼는 장점 및 단점

이번에는 자부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시모의 정

적 자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감정 관여적 가치문항 (문항 3, 5)과 4개의 도구적 가치문항 (문항 1, 2, 6, 8)에 대한 두 가지 형태-- 평정 및 등위매기기--의 반응을 하게 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 시모의 정적 가치 : 자부가 느끼는 동거 장점

문항	N	등위*					평정치	
		1	2	3	4	5	M	SD
1.집 보아 주기	124	31	14	5	12	19	6.9	2.56
5.집안에 안정감 주기	124	22	22	18	23	13	7.3	2.45
2.자녀 돌보아 주기	124	18	25	23	16	9	6.7	2.67
8.어려운 일 의논대상	124	18	14	22	15	16	6.5	2.95
6.살림에 지혜로운 도움주기	124	13	18	14	29	18	6.6	2.59
3.가정 화목	124	9	9	14	5	18	5.8	2.93

\* 등위의 사례 수 합계는 5위까지만 매기게 했으므로 전체 사례 수와 일치하지 않음

위 표에 따르면 정적 가치의 중요도는 '집 보아 주기'와 '집안에 안정감 주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 돌보기', '어려운 일 상의해 주기', '살림에 지혜로운 도움 주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모가 자부에 대해 다양한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임을 뜻한다. 그리고 비록 정적 가치로 제시는 했지만 '가정 화목에의 기여'가 '집안에 안정감 주기' 항목에 비하여 등위에서나 평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점 어쩔 수 없는 고부간의 화목과는 거리가 있는 솔직한 심정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시모와 자부의 상호간의 평가에 있어 대체로 시모가 훨씬 후한 평가를 한 점이 또한 특색이다.

다시 자부에게 미치는 시모의 부적 가치로서 시모와의 동거 단점을 물어 <표 4>에 제시했다.

<표 4> 시모의 부적 가치 : 자부가 느끼는 동거 단점

문항	N	등위*					평정치	
		1	2	3	4	5	M	SD
4.행동 제약 (잠, 취미 등)	124	31	40	22	17	7	6.8	2.84
1.부부만의 생활방해	124	30	28	15	15	10	6.0	2.96
2.세대차로 인한 의견 대립	124	28	13	35	14	11	5.8	2.64
5.부양 부담	124	12	14	19	16	15	5.1	2.77
6.친정나들이 어려움	124	11	14	10	24	29	5.5	3.00

\* 등위의 사례 수 합계는 5위까지만 매기게 했으므로 전체 사례 수와 일치하지 않음.

이 표에 따르면 자부자신의 '행동 제약'이 가장 큰 불평이고 '부부만의 생활방해' '의견대립' '친정나들이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그 불평이 드러났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강한 요구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평정의 중간점인 5점 이하로서 별로 중요한 부적 가치로 보기 어렵다.

### 3). 고부 상호 요망사항의 요인분석

갈등의 기저에 작용하는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의 요망사항들을 묻고 이에 대한 중요도 차원에서의 등위 매기기와 평정반응을 얻어 이 자료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 (1) 시모의 요망사항에 대한 요인분석

시모의 요구자료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교 회전방식을 통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한다.

<표 5> 시모의 요망사항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9. 아들에게 잘 해줄 것	.81413	.20864	.05923
6. 가족, 친척들과의 화목	.80787	.15818	-.20128
2. 손자, 손녀 좋은 양육	.74739	-.03114	-.35462
7.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줄 것	.73523	.19217	.16413
4.살림 알뜰히하고 절약할 것	.67755	.23679	.01205
10. 용돈 잘 챙겨줄 것	.10320	.86068	.04882
3. 건강, 병간호에 노력할 것	.14588	.76788	.08935
8. 집안 대소사 상의해 줄 것	.36061	.54357	-.02330
11. 순종하고 상냥하게	.52927	.52960	-.05618
5. 대화 요망	.06720	.50383	-.46921
1. 자부의 직업 희망	-.03297	.11095	.84397
eigen 값	4.23	1.51	1.06
%	38.5	13.7	9.6

\* 수치는 요인 부하량

이 표의 요인 1에서 .5이상의 요인부하를 보인 요구 항목들은 주로 아들, 가족, 손자, 본인(시모)에 대한 배려와 알뜰한 살림에 관련된 요망사항이므로 이를 가족 관심이라 명명하고, 요인 2에서는 시모 용돈 챙겨주기, 건강 관리 등 시모 관련 내용이므로 시모 관심이라 명명(命名)하고, 요인 3은 단일 항목으로서 자부취업관심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시모의 요망 사항은 전통적 가족주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부의 전폭적인 가족 봉사를 요구하였다.

(2) 자부의 요망사항에 대한 요인분석

같은 방식으로 자부의 요구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6>에 제시한다.

<표 6> 자부의 요망 사항 요인 분석 내용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9. 아들처럼 믿어 줄 것	.75375	.27039	.18920
8. 직장, 사회활동 이해	.71905	.05679	-.06678
5. 남편과의 불화 중재	.53221	.31602	.28990
6. 솔직한 대화	.51981	.19402	.41026
4. 경제권, 가사권 완전 이양	.21014	.71431	-.02676
2. 친딸처럼 대해 줄 것	.17625	.69844	.07288
1. 경제적 도움 줄 것	-.33691	.60707	.36576
3. 피곤할 때 휴식할 수 있게	.34800	.51672	.15541
10. 가사일 거들어 줄 것	-.07408	.07004	.80999
11. 집안 일에 대한 상의	.27380	.24402	.63457
7. 손자 손녀 잘 보살펴줄 것	.47464	-.06799	.60191
eigen 값	3.58	1.30	1.17
%	32.5	11.8	10.6

\* 수치는 요인 부하량

위 표에서 요인 1에 높은 요인 부하를 보인 항목들은 '아들처럼 신뢰', '며느리 사회활동 이해', '남편과의 불화 중재', '솔직한 대화' 등이다. 이들 내용의 핵심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내게 관심' 등의 요구 내용이다. 그래서 신뢰 요망이라 명명하고 제 2 요인으로는 '경제권 이양', '경제적 도움', '친딸처럼 대우', '휴식 허용'이므로 자부 권한 요망이라 명명하고 제 3 요인은 가사 도움 요망으로 명명하였다.

자부들의 요망사항은 가족과의 친밀관계, 자부로서의 권한, 그리고 자신의 발전 추구임을 읽을 수 있다. 이 점 시모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3. 종합 논의 및 제언

자원론적 관점에서 고부 상호간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화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 1) 논의

시모와 자부가 느끼는 동거 장점과 단점의 비교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갈등관계로 알려지고, 함께 살기를 기피하는 시모와 자부 모두의 반응에서 동거로 인한 장점이 단점보다 월등히 높게 평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되어 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더 우리 마음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장점보다 단점이 실제로는 적을 때에도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통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이 더 지배받는 것을 경험한다.

시모쪽의 소극적인 반응에 대하여: 자부에 비하여 더 소극적인 평가를 한 점 즉, 장점은 아주 좋게, 단점은 덜 나쁘다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 점은 고부간의 상대적 약세임을 자인하는 데서 오는 소이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부의 자유와 주부권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하는 당당한 모습에 비춰 볼 때 더욱 시모의 약세임이 드러난다. 더욱이 가족간의 세력구조 면에서 고부간에도 자부의 정착기를 고비로 점차 자녀들의 장성함과 주부권의 확립등에 힘 입어 점차 강화되는 반면 시모는 연령증가, 주부권의 이양 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는 세력의 재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없다.

## 2) 제언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부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관계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 면에서 판단할 경우 서로 주고 받는 혜택이 큼을 자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즉 사회교환적 차원 (요구상보적: need-complementariness)에서 고부 상호간에 주고받는 혜택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불편을 축소시키는 긍정적 마음가짐(positively thinking)을 통하여 이들의 관계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영복. 한국 가족 문화의 변용. 아세아 연구, 10권 2호, 317-336
- 김두현(1948). 조선가족제도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윤진(1984). 노부모와 중년 자녀와의 관계 -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 이광규(1975). 부계 가족에서의 고부문제. 인류학논집, 1, 119-140.
- 이택규(1964).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 대전: 청구대학 출판부.
- 이진환(1976). 감독행동의 대간 전이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전현숙(1982). Lewis A. coser의 갈등 기능론.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 차재호(1987). 사회심리학 실험실습. 법문사.
- 최재석(1966). 한국가족연구. 서울: 민중서관.
- Coser, L. A. (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e: free press.
- Freud, S. (194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 Garfinkel, H. (1967). *Studies in Ethnomethod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Jones, E. E. & Harold, B. G.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y.
- Meyer, J. W. & Brian, R.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 Salancik, G. R. & Jeffrey, P. (1977). Who Gets Power--And How They Hold On To It: A Strategic Contingency Model of Power. *Organizational Dynamics*, 5, 3-21.
- Vroom, H. & Victor. (1977).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Zucker. & Lynne, G. (1964). The Role of  
Institutionlization in Cultural Persist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

## Research for the Relief of Conflict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Choe, Hioh-il

Woosuk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was intended to examine conflict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Data were collected from 124 pairs of mother- and daughter-in-law living together, using structured interview schedules. Interview questions were addressed to the areas of following contents: gen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ving together, mutual demands and situations of making conflicts. Data were treated with descriptive and factor analytic methods.

Results were summarized as below :

1) In one of noticeable points, they responded high advantages and low disadvantages to each other while they are in discord mutually.

2)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nature of satisfactions expected to be provided when they live together is different for mothers- and daughters-in-law. The formers put more emphasis on emotional and social side of satisfactions such as they feel safe and proud of themselves living with their grand-son while the latter on satisfactions from instrumental utility such as care of children, door-keeping and counselling.

3) For the request of mothers- and daughters-in-law, the former stress the traditional family relationship and demand the daughter-in-law service as her duty. On the other hand, daughter-in-law claims the right as a housewife and her liberty.